

<2017년 1월 29일 주일말씀>

실천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본 문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과

성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말씀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 오늘은 ‘<실천>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 성경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실천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선지자들과 중심인물들이 실천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 시대 섭리역사가 과거에 실천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말씀 시작>

◆ 이 말씀을 쓰기 전에

이것저것 하다가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때 성령님께 “이 급한 일들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고 물으니,
성령님은 “그 역시 ‘실천’으로 해결된다.” 하셨습니다.

- ◆ 급할수록 ‘실천’ 으로 해결되고,
안 급한 것도 ‘실천’ 으로 해결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 올해는 빛을 잡듯 빠르게 실천하라고 했는데요,
빛을 잡듯 실천하려면 평소에 ‘길’ 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 방법은 ‘선생이 실천하는 방법’ 이며,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입니다.

- ◆ 첫째, 실천하기 전에는 먼저 ‘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 ◆ 둘째, 실천하려면, 실천할 것들을 ‘생각’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생각’ 에서 잊어버리면,
시간이 있어도 못 합니다.

그러나 ‘생각’ 에는 한계가 있으니,
꼭꼭 ‘기록’ 해 놓고 잊지 않도록 수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서, 하나하나 신속하게 실천해야 됩니다.

- ◆ 셋째, 실천하고 나서는, 그 일을 다 했다고 놀면서 시간을 보내면

빨리한 보람이 없고, 다음 일을 할 때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

<생각>이 식고 <뛰던 몸>이 식으면, 잘 안 해집니다.

고로 실천했으면, 잠시 충전만 하고

바로 ‘다음 할 일’을 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 ◆ 넷째, 실천할 때는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힘들고, 제대로 못 하고,

해서는 안 될 것도 자기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또 혼자 하면 이상적인 생각이 떠오르지 않고, 힘도 약합니다.

꼭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같이 해야 됩니다.

- ◆ 올해는 실천할 때 빛을 잡듯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빛을 잡듯 실천하려면,

<빛보다 빠른 생각>을 가지고 순간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판단하려면, <성령과 주의 생각>과 일체 돼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잡듯 실천하여,

시계처럼 순간 왔다 가는 기회도 잡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꼭 같이 해야 됩니다.

- ◆ 초를 다투면서 순간 판단하고 분별하고 실천할 것들이 많습니다.

〈초를 다투는 일〉일수록 ‘성령과 주’와 함께 해야
빛을 잡듯 빠르게 판단하고 실천해지게 됩니다.

그러려면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평소에도 빛같이 번뜩번뜩 행해야 됩니다.

- ◆ 성령님의 특징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즉시즉시 판단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자기 스스로의 생각’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고,
〈자기 스스로의 생각〉을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고로 꼭 ‘성령과 주’를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 신령해지고,
기도해야 - 평소에도 성령과 가까이 일체 되어 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인지 〈자기 생각〉인지 바로 분별하게 됩니다.

- ◆ 평소에도 늘 성령과 주와 대화하며 기도해야
〈초를 다투는 일〉이 생겨도 즉시 물어보고 분별하게 됩니다.

〈물어보는 것〉이 ‘확인’입니다.

- ◆ 빨리 실천하려면, ‘이런 길’을 만들어 봐야 됩니다.

평소에 〈빨리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름길〉을 만들어 놓고,
급할 때 그 길을 사용하면서 실천해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자기 혼자서만 하려면, 늦습니다.

혼자서는 ‘작은 일’은 해도 ‘큰일’은 못 합니다.

성령과 주를 부르며 같이 하고,

형제들과 같이 할 것은 같이 해야 빛을 잡듯 빨리하게 됩니다.

- ◆ 어떤 사람은 주와 안 하고, 혼자 합니다.

꿈만 크게 갖고 말만 하다가 맵니다. 애만 태우다 맵니다.

결국 그 수고가 헛되고 맵니다.

- ◆ 어떤 사람은 다 해 놓고 보고합니다.

처음부터 나중까지 주와 같이 해야 됩니다.

- ◆ 실천하려면, 주께 보고하면서 해야 됩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고로 주께 물어보면

“그 일은 누구에게 시켜서 하고 했다. 너는 다른 일 하자.”

하면서 다른 사명을 주고 다른 일을 맡깁니다.

중심이 되는 <머리>는

수만 명이 하는 일에 대해 보고를 받으니 다 알지만,

개인 한 명이나 한 교회는 그 주권만 압니다.

고로 <머리>에게 묻지 않고 하면,

이미 다른 데서 한 일이라서 안 해도 되는데 반복하기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필요 없이 하기도 합니다.

모두 주를 중심으로 한 덩이가 되어서 실천해야 됩니다.

- ◆ 어떤 사람은 묻지 않고 하다가 ‘예전에 이야기한 곳’ 으로 갑니다.

가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행사가 변경됐는데,
묻지 않고 혼자 하니 바뀐 것을 모르고,
예전에 이야기한 곳에 가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격과 같습니다.

꼭 주께 묻고, 보고하고, 확인하면서 행해야 됩니다.

- ◆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보는 차원’ 대로 합니다.
그 차원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길’ 로 가지게 됩니다.

- ◆ 실천할 때는 무엇을 실천하는지 머리에 알려 주고
머리와 상의하고 해야 됩니다.

- ◆ 또 실천할 때는 ‘한 가지’ 만 보고 실천하지 말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 를 보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보고 실천하다가 문제가 생깁니다.

- ◆ 실천을 잘못하면, 실천한 만큼 손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합니다.

- ◆ <제때 먹고 화장실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의 일’ 이니
일일이 보고하지 않고 실천하면 되지만,
<섭리사의 일들>은 ‘하나님의 일’ 이니
반드시 머리에 물어보고 상의하면서 해야 됩니다.

- ◆ <성령과 주>를 부르면서 물어보고 같이 하고,
<형제들>과도 <따르는 자들>과도 의논하며 같이 해야 됩니다.

- ◆ 그동안도 지도자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하니,
따르는 자들이 심정이 상하여
같이 뜨겁게 할 마음이 없어져 버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지도자가 계속 혼자 하니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옮기기도 했고, 제 갈 길로 가기도 했습니다.

- ◆ 실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앞에 보고해야 됩니다.
형제들과 부딪히고 윗사람과 부딪혀서 힘든 자들이 많습니다.
주께 사연을 고해야 해결됩니다.
그래야 주가 삼위 앞에 고하여 답을 받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 ◆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찾아서 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 <좋은 연장>을 두고,
<손>으로 땅을 파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집에 ‘괭이, 삽, 곡괭이, 포클레인, 불도저’가 있는데,
그 기구들을 사용하지 않고 ‘혼자’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의논하지 않고 ‘혼자’ 하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에게 왜 혼자 하느냐고 물으니,
“누구를 시켜도 시원찮고, 시킬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선생이 그 지도자에게 다시 편지를 했습니다.

“선생이 여기 있어서 못 하는 일을
너희 교회 교인 중에서 누구에게 시켰더니 잘하더라.

<쓸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사람을 쓰는 기술과 차원>이 낮구나.” 했습니다.

- ◆ 작거나 어린 자라도 시키면, ‘자기 몫을 하는 사람’ 이 많습니다.
잘 가르치고 그 사람과 하나 되어 하면, 잘합니다.

- ◆ 진로 면담을 할 때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회로 나가는 길’ 인데,
면담하는 자가 그건 아니라고 경솔하게 말합니다.

그러니 답답하여 선생에게 편지를 보내오기도 합니다.

다시 편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여 ‘축복받고 가는 길’ 이니,
<신앙을 중심>해서 열심히 해라.” 했습니다.

- ◆ 생명들을 신앙으로 이끌지만,
<신앙>으로만 묶어 놓고 다른 것은 못 하고 살게 하면 안 됩니다.

단상의 사명을 할 자가 있고, 섭리사를 펼 자가 있고,
취직을 할 자가 있고, 사회로 진출해야 할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서 이끌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야 됩니다.

- ◆ 생명들은 성장하면서 달라집니다.

크면, 학생 때와는 달라집니다. 신앙이 어릴 때와는 달라집니다.

무조건 <신앙의 영적인 일>로만 묶어 놓지 말고,

<신앙>으로 바로 서서

<육의 세계, 육의 일>에도 들어가서 실천하도록

생명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 ◆ 중심은 ‘신앙’ 입니다.

신앙으로 바로 서서 ‘세상의 것’ 도 얻어야 됩니다.

<세상 물질 축복>은 거기 들어가서 실천해야 얻게 됩니다.

- ◆ <영과 육> 모두 강건하고, <영과 육> 모두 형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영적’ 으로도 ‘육적’ 으로도 실천해야 됩니다.

<전환>

◎ 오늘은 ‘실천으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 ◆ 실천하면 될 일인데 자꾸 안 하고 미루면,

나중에는 엄두를 못 내고 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안 돼도 실천하면 할수록 잘해집니다.

- ◆ 또한 <차원 높이는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작년보다 더 큰 것’ 을 얻습니다.

◆ 차원을 높이려면,

깊은 기도를 하고 삼위와 깊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주를 머리로 삼고 뭉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돌포도나무>가 ‘열매의 차원’ 을 높이려면

<참포도나무>와 접붙여야 되듯이,

모두 ‘실천의 차원’ 을 높이려면

절대 ‘주와 일체’ 되어 ‘주와 함께’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는 ‘보낸 자’ 로 말미암아 실행하십니다.

◆ 주의 이름으로 받았으면 ‘혼자’ 쓰지 말고,

삼위와 주와 함께 쓰고 삼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께서 ‘설교나 계시로 하시는 말씀’ 을 자세히 듣고,
사실이 그러하니 ‘꼭 실천’ 해야 됩니다.

◆ <생각>을 잘못하면 딴 세상으로 가니,

<생각>을 잘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설교도 계시도 ‘자기 주관’ 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주를 벗어나 ‘다른 주관’ 을 받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 말해 준 것 안>에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더라도 ‘주의 말씀 안’ 에서 받아야 됩니다.

<계시>를 받을 때 ‘자기 주관’ 이 있으면,

구정물에다 생수를 섞는 격이 됩니다.

◆ <꿈>도 ‘자기 주관’ 대로 풀면 안 됩니다.

<꿈>은 ‘현실과 연결된 것’ 이 ‘답’ 입니다.

자기 주관대로 욕성으로 풀면, 오해하거나 낙심하게 됩니다.

<꿈 계시>는 대개 꾸미고 만들어서 보여 줍니다.

고로 <꿈에 나오는 자>가 ‘실체 대상’ 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하나의 ‘상징’ 으로 보여 주는 것입니다.

◆ 선생에 꿈에 ‘월명동 윗집 사람’ 이 자주 나타나기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 기도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왜 내 꿈에 나타났지요?” 하며 성령께 물었습니다.

이에 성령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웃 같은 자>라는 뜻에서 ‘이웃사촌’ 을 보여 준 것이다.

<꿈에 나온 그 사람>과는 상관없다.

성경에서 메시아는 구름 타고 온다고 할 때,

메시아가 오는 것은 ‘하늘 구름’ 과 상관없지 않느냐.

여기서 <구름>은 ‘비유’ 다.

이와 같이 <꿈에 보여 준 사람>도

어느 때는 ‘그 사람의 영혼’ 을 보일 때가 있지만,

대개 ‘상징’ 으로 꾸며서 그 사람을 보여 주면서

깨닫는 것에 목적을 둘 때가 많다.” 하셨습니다.

◆ 사탄은 ‘꿈’ 으로도 유혹합니다.

고로 <꿈>을 꺾어도 ‘자기 주관’ 대로 풀지 말고,

꼭 주께 묻고 확인받아야 됩니다.

- ◆ 또한 <기도>도 너무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면 안 됩니다.
이같이 <지나친 기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마치 생명을 관리할 때 더 잘해 주려다가 지나치게 다루면,
오히려 생명에게 해를 주듯 합니다.

- ◆ 실천하되 ‘차원 높은 실천’을 하고,
<차원 높은 온전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꼭 성령과 주를 부르며 성령과 주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기 바랍니다.

<전환> 중요 부분

- ◆ 지난주에 <올해 섭리사의 꿈>을 이야기해 줬지요?

선생이 겨루는 자와 경주하는 꿈이었습니다.

선생이 경주하던 대상은 ‘마라톤 선수’였습니다.

상대가 경주에 유능하니, 전심으로 뛰어야 승리하는 꿈이었습니다.

전심으로 뛰면, 삼위일체가 앞에서 끌어 준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같이 올해는 ‘경주하듯 뛰면서 실천’ 하여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줄 것’을 줍니다.

- ◆ 이 꿈에서 <나와 겨루던 자>는 ‘범석이’로 보였습니다.

범석이가 잘 뛰니, ‘범석이’로 보인 것입니다.

또 범석이는 ‘내 형제’이니,

<신앙의 형제, 기성>과 <이방의 형제, 세상>과

정정당당하게 겨루어 이기라는 꿈입니다.

- ◆ 내가 경주에서 이기고 범석이가 사라졌다고 하니,
어떤 사람은 선생에게 걱정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꿈 계시를 다 보여 주면, 꿈 장면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무지한 해석>은 ‘자기’ 만 괴롭게 합니다.

- ◆ 또한 주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시대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주를 머리로 삼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앞니가 빠지고 이가 무너져 내리고 입 냄새가 나는 자와 같습니다.

<하늘 신부들>이니 오직 주를 중심으로 주를 머리로 삼고,
주와 일체 되어 판단하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했습니다.

- ◆ 이 꿈에서 <예쁜데 이가 무너진 여자>는 ‘조은이’ 로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여자>를 ‘선생’ 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날 선생이 ‘정한 기도 시간, 새벽1시’ 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새벽 1시 기도>가 무너진 것이
<앞니>가 부러지고 <송곳니>가 무너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나 약속한 시간>이 무너지면,
마치 ‘이가 무너진 것’ 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연결’ 해서 다시 푸니, 아니었습니다.

육적으로는 나와 주장이 다른 형제를 보여 준 것이고,
영적으로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섭리인들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말씀 중에 자세히 풀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 ◆ 처음에 이 여자를 ‘선생’ 으로 풀었더니,
어떤 사람은 어떻게 선생님을 그렇게 볼 수 있냐면서,
누가 말씀을 과하게 교정했다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단상의 모든 말씀>은 ‘100% 주의 말씀’ 입니다.

말씀 중에 자세히 말씀해 주며 제대로 설명해 주었는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중요 부분

◎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 ◆ 올해는 최선을 다해 ‘경주’ 하듯 빛같이 뛰고 달려야 됩니다.

- ◆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최대로 정확하게 하면서 빨리해 보아라.
기록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자.” 하셨습니다.

- ◆ 그래서 하루 종일 ‘경주’ 하듯 ‘일’ 과 겨루면서 뛰었습니다.

기도하고, 잠언 쓰고, 교정하고, 설교도 쓰고, 또 교정하고,
편지도 쓰고, 결재할 것들을 다 결재하고 나서 보니,
우편물을 걷어 갈 시간 ‘1초’ 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1초’ 에 편지들을 봉해서 봉투에 넣어 보냈습니다.
<초>를 다투며 끝냈습니다.

- ◆ 이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잡듯 실천한 것이 이것이다. 모든 일을 빛을 잡듯 해라.

이와 같이 한 것이 ‘경주하고 뛰어서 1등을 한 것’ 이고,
이것이 곧 ‘겨루는 자와 겨루어 이긴 것’ 이다.

<자기와 겨루는 자>가

<사람 상대>가 될 때도 있고 <일>이 될 때도 있다.

환난과 핍박을 이기는 것이나,

실제 어떤 상대와 경주하고 겨루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기, 감사하기, 영광 돌리기,

새벽 제시간에 일어나기, 제때 행하기 등

생활 속에서 자기가 할 일들과 경주하듯 겨루기다.” 하셨습니다.

- ◆ 모두 <자기 생활>과 <할 일>과 <시간>과 겨루며 뛰고 달려서
승리하여 얻고, 삼위와 주와 형제들과 함께 잔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진정 깨달았습니까? 아멘!

- ◆ 오늘 말씀 ‘실천으로만 해결된다!’

연속해서 행하면서, 정녕코 ‘실천 도전’ 을 해야 됩니다.

평소에 늘 실천하여, 실천이 밀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 ◆ 2017년 실천의 해!

실천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삼위의 실천의 능력’ 이 충만하여

<생활 속에서 자기 할 일>과 <시간>을 두고,

초를 다투듯, 빛을 잡듯, 경주하듯 뛰고 달려

승리하여 얻기를 축원합니다!